

대인야시장, 가을밤 더 풍성한 예술밥상 차린다

광주의 대표 문화축제인 '대인예술야시장'이 가을밤 더 풍성한 예술밥상으로 돌아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9월6일부터 11월22일까지(추석연휴 10월 4일과 11일 제외) '2025년 하반기 대인예술야시장'을 총 10회 운영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하반기 개장은 '광주 방문의 해',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광주 대표 행사와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간 복합 문화관광 콘텐츠(공연·전시·체험)로 기획됐다.

그동안 대인예술야시장은 전통시장 먹거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신메뉴 개발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했다. 9월 야시장에서는 상인 품평회를 통해 선정된 신메뉴 첫선을 보인다. 또 대인예술야시장 캐릭터인 부엉이 모양의 '아울러 빵'과 '말차막걸리'도 공개된다.

9월 대인예술야시장은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기념하는 가상현실(VR) 양궁체험, 케이(K)-뷰티 열풍을 반영한 '1만원 뷰티 프로그램'(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메이크업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로 채워진다.

특히 시장 전체가 예술 놀이터로 탈바꿈한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야시장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도화지 삼아

광주시, 9월6일부터 토요일 밤 개장... 총 10회 운영
부엉이 모양 아울러빵·말차막걸리 등 신메뉴 첫 선
9월13일 KIA 유니폼 입은 관객에게 신메뉴 시식권
1만원 K-뷰티·VR양궁 체험... 대인예술주간 투어도

그리는 '대인마당 스케치북', '판화로 그리는 명작', '구슬로 그려보는 추상화', '뽕생긴 초상화-1분 캐리커처' 등 다양한 예술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체험에 참여한 방문객에게는 '예술체험 스탬프 투어'를 통해 부엉이 캐릭터 열쇠고리를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또 '한평갤러리 관람→레지던시 작가 투어→나만의 굿즈 만들기 체험' 코스로 구성된 '대인예술주간 투어'도 마련된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람권을 소지한 신청자는 무료로 굿즈 만들기 체험이 가능하다.

한평갤러리 1관에서는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어린이 여름미술대회 수상작 전시가 열린다. 대인예술야시장 부엉이 캐릭터의 탄생 이야기를 어린이의 시선으로 풀이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한평갤러리 2-3관에서는 9월 한 달 동안 다이나믹 스케치 그룹(DSG)의 '다이나믹 광주 : 스케치 로그' 전시가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광주의 순간과 기억을 드로잉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감미미, 박성환, 윤연우, 장다연, 조숙위, 최지선 등 6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특히 토요일 야시장 운영시간에는 현장 라이브 스케치가 진행돼 현장의 분위기를 실시간 드로잉으로 담아내며 관객에게 특별한 예술 경험을 선사한다.

대인예술야시장은 오후 6시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시장 곳곳에서 펼쳐진다. 공영주차장 메인 무대에서는 통기타 라이브, 어쿠스틱 듀오 공연, 버블 매직쇼, 디제이(DJ) 무대가, 국밥거리 사거리에서는 포퓰 마두금 연주와 시민참여 버스킹 공연이 이어져 전통시장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인다.

9월 13일 대인예술야시장 공영주차장 주차대에서는 'KIA 타이거즈-LG 트윈스 프로야구 경기'가 실시간 중계된다. 이날 KIA 타이거즈 유니폼 착용 관객에게는 신메뉴 시식 쿠폰이 제공된다. 야구와 예



술이 만나는 이색 경험을 통해, 야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인예술야시장 공식 누리집(www.아울러대인.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062-233-0270)도 가능하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대인예술야시장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한 지역 대표 야간 관광 명소로 자리잡았다"며 "새로운 먹거리와 예술 체험으로 채워진 대인예술야시장에 대해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공중화장실 11곳에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등 인식, 112 상황실과 연결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최근 관내 공중화장실 11곳의 노후 비상벨을 '음성인식 양방향 비상벨'로 교체·설치했다고 밝혔다.

'음성인식 양방향 비상벨'은 마이크와 스피커가 내장된 양방향 통화 장치로 비상벨 작동 시 경보음과 함께 즉시 112 상황실에 연결돼 경찰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비상벨은 버튼을 눌러야만 작동해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위급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에 설치된 음성인식 비상벨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등 외침만으로도 자동 작동해 경찰 상황실과 즉시 연결되는 것이 큰 장점이다.

동구는 앞으로도 관내 전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노후 비상벨 교체 및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노후비상벨 교체 및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로 주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서구, 어르신 맞춤 '스마트경로당' 운영

10월까지 120곳 조성... 인지건강 위한 스마트테이블까지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에 '스마트경로당' 50곳을 조성하고 본격 운영한다.

서구는 5일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경로당 개소식을 개최했다.

스마트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화상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노래교실·요가교실 등 참여형 여가·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복지 공간이다.

서구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송출하기 위해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에 전용 스튜디오를 설치·운영한다. 또 경로당에는 스마트경로당 도우미를 배치해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참여와 기기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지건강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구는 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 스마트테이블을 설치하고 틀린그림 찾기, 두더지잡기 등 두뇌훈련용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향상과 여가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구는 앞으로도 스마트경로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10월까지 70곳을 추가, 총 120곳을 조성할 예정이며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석우 기자

북구, 지역자활센터 운영성과 '광주 유일' 최우수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동진·희망지역자활센터 2곳이 최우수기관, 일터지역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역자활센터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맞춤형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228개 지역자활센터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수행한 자활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북구에 소재한 지역자활센터 3곳은 북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67개 자활사업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참여자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참여율 ▲자활역량 증진 ▲사업단 운영성과 ▲자활기업 활성화 ▲센터 운영 전문성 등 총 16개 평가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동진지역자활센터의 '파송송 엄마손 사업'과 희망지역자활센터의 '솔로몬 밥상 사업' 그리고 일터지역자활센터의 청년자립 도전을 위한 시각 디자인 및 광고 전문 창업 지원사업 '디자인 내래'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한 우수 지역특화사업으로 평가위원들의 호평을 얻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북구는 총 6천여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으며 이는 자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자활센터 운영 최우수 평가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활을 위해 노력하신 자활 근로자분들과 관계기관 종사자들께서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지역 자치구 최초로 12m 이상 도로에 설치된 노후 가로등을 고효율 LED로 바꿔 가로등 교체율 100%를 달성했다.

더 밝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LED 조명 사용으로, 연간 수억원의 전기요금 절감과 밝기 개선, 사고 예방까지 3가지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남구는 5일 "도로 조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도시 조명 노후 시설물 교체 사업을 진행해 관내 왕복 2차선 이상 도로의 가로등을 전부 교체했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 자치구 최초 '가로등 LED 교체율 100%'

도로폭 12m 이상 75개 도로 7,531개 모두 바꿔

도시 조명 노후 시설물 교체 사업은 지난 2011년 당시 정부에서 2020년까지 국가 전체의 LED 조명 보급률 60%와 공공기관 100% 달성을 목표로 '녹색 LED 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광주광역시와 같은 해에 에너지관리공단과 손잡고 공공기관의 보안등과 가로등을 고효율 조명인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광주 지역 자치구는 광주광역시

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기존에 나트륨과 메탈등으로 설치한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에 나섰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표준 모델 LED 가로등을 만들어 확대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2014년 연말 기준으로 당시 남구 관내 도로 가로등 LED 교체율은 11% 수준에 불과했다.

남구는 이후 지난 2020년부터 5개년 계획에 따라 왕복 2차선 도로에 해당하는 도

로 폭 12m 이상의 서문대로와 대남대로, 화재로, 용대로, 군분로 등 관내 75개 도로에 설치된 노후 가로등 7,531개를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관내 노후 가로등 LED 교체율은 이같은 노력으로 2020년 연말 기준으로 60%까지 수직으로 상승했으며, 이후 2025년 7월까지 5년간 가로등 1,060개를 추가로 교체해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LED 가로등 100% 보급이라는 결실을 보았다.

이와 함께 도시 조명 노후 시설물 완전 교체로 가로등 운영 효율화를 꾀하면서 연간 3억 4,592만원에 달하는 전기요금도 절약하게 됐다.

/임채일 기자

전남도, 초고령사회 어르신 역량 활용 정책대안 모색

노인일자리사업 내실화 민·관 합동 워크숍서 지혜 모아

례를 발표했다. 우수 사례 현장으로 제주도 시니어클럽에서 운영 중인 빨래방(꿈dream), 카페(살레), 봉제사업단(한울한뫼), 페플라스틱사업장(탐나는 예코) 등을 방문했다. 노인 일자리의 새로운 사업 발굴과 실행 방안을 토론했고, 시니어클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생산품 홍보, 판매 전

략, 자원 연계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전남도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올해 사업비 2천70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2천345명이 증가한 6만 7천여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노인 일자리 공동체사업단의 기반 조성을 위해 7개 시니어클럽에 2

억 원의 초기 투자비를 지원하고, 4개 사업단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2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노인 역량 활용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은 노인 정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참여 어르신의 안전이 최우선이니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 교육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